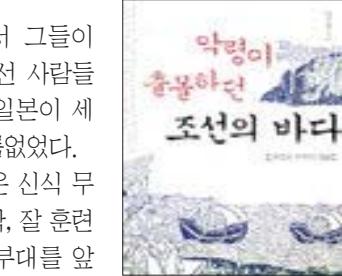


# 북

## 기록으로 본 '조선-서양'의 첫 만남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

박천홍 지음



저 면바다에서 그들이 오기 전까지, 조선 사람들은 세계는 중국과 일본이 세계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어느 날 그들은 신식 무기와 거대한 선박, 잘 훈련되고 조직적인 부대를 앞세워 조선의 앞바다에 나타났다.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러시아, 미국에서 출발한 '이상한 모양의 배'들이 조선 해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유는 다양했다. 처음에는 우연히 표류해 오거나 식량과 물 등을 찾아 잠시 상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탐험과 측량, 통상 요구, 기독교 선교, 보복 원정 등으로 바뀌었다. 구성원들도 탐험가, 측량기사, 군인, 상인, 선교사, 포경선원, 의사, 통역관, 작가 등 가지각색이었다.

조선시대 고서, 개화기부터 1960년대까지 간행된 희귀 단행본과 잡지 등을 소장하고 있는 제단법인 아단문고의 학예실장인 박천홍이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를 평했다.

책은 16세기부터 1860년대 초까지 한반도 해안에서 서로 마주친 조선인들과 서양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책은 생김새와 언어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틀마저 다른 이방인들의 만남이 당시에는 문화적인 충돌 그 이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순조 1년(1801) 제주도에 상륙한 포르투갈 사람들은 열린 어전 회의에서 오고 간 대화는 당시 조선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회의에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겠는가?"라고 정순왕후가 물자 "말이 분명하지 않고 문자 또한 과



18세기 초 일본에서 활동했던 독일인 의사 자볼트의 책에 실린 한국인의 생활 풍속도. 자볼트는 한국인을 피부가 검고 비뚤어진 눈을 가진 것처럼 묘사했다.

이하며 복장도 하기에서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라고 영의정 심환자가 대답했다. 이어 정순왕후는 "나는 사방의 나라는 문자가 같다고 알았다. 그런데 문자가 다르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던 것이다.

저자는 개항 이전의 조선 바닷가에 대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서양과 조선 양쪽 모두의 시각으로 그 '만남'을 풀어나간다. 당시 조선 지방관들이 남긴 보고서와 서양인들의 일기, 여행기, 항해일지, 편지, 문건보고서 등을 토대로 수많은 서양 배들의 당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책은 16세기 이후 서양 배들이 조선을 찾은 16가지 사례를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했다. 제주도에 표류했다가 역류당한 하벨을 시작으로 미국 군함이 강화도에 침입한 1871년의 신미양요,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범한 1866년의 병인양요 등 독자들에게 친숙한 사건들이 먼저 눈길을 끈다.

또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동해에서 고래잡이를 하다 독도를 발견해 '리앙쿠르 암초'라고 이름 붙였다 내용과 1854년 울산만에서 시작해 5월 11일 북위 43도 지점까지 북상하면서 조선 연안을 축정한 갤라디호 기록 등 독도의 한국 소유권을 입증하는 사료도 함께 실려 있다.

저자는 당시 조선이 남긴 기록과 이방인들이 남긴 기록을 함께 분석했다. 각 사례들은 서양인의 시각과 조선인의 시각으로 나눠 묘사됐다. 전반부는 조선을 처음 목격한 서양인의 느낌과 감정을, 후반부에서는 조선의 시각을 담았다.〈현실문화·3만2천원〉

/이은미자 emlee@kwangju.co.kr

## 그들은 한 권의 책에서...

정혜운 지음



그녀의 첫번째 저서 '침대와 책'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분명 두 번째 책을 기다렸을 것이다.

'지상에서 가장 관능적인 독서기'라는 부제가 붙은 '침대와 책'은 독특한 매력이 있다. '꽃같은 그대가 울고 있을 때', '내 옆의 남자들이 매력 없이 보이면', '부장님께 뒷ون 깐진 날' 등의 제목 아래 그녀가 처방전처럼 언급한 책들(지극히 주관적이지만, 한번쯤 그림을 짊어들게 만든다)은 그녀의 전방위적 독서권력을 잘 보여준다.

거기다 막걸스런 글쓰기와 적절히 배치된 자신과 주변의 이야기는 독자를 흡인하는 요소였다. 김용택의 시를 좋아하는 문소리는 이창동 감독의 소개로 읽게 된 초바이크의 '발자크 평론' 등에 대한

그녀가 만난 이들의 책 이야기다. '정해운이 만난 매혹적인 독서가들'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책은 김중권·정이현·공지영·김탁환·은희경·신경숙·이진경·변영주·문소리·임순례·김탁환 등 11명과 나눈 '책'과 관련된 인터뷰다. 저자의 표현을 벌자면 '어떤 이의 인생을 책으로 엮어본 작은 전기'다.

시대의 독설가 진중권과의 인터뷰에서는 '강소천 아동문학전집'(이 책은 은희경도 언급한다)부터 베를린의 어린 시절' 등 가장 영향을 많은 발터 베이민의 저작들, 이런 책 한권 쓰고 나면 '죽어도 좋아'라고 외쳤던 프레이저의 '황금가지'가 등장한다.

임순례 감독은 자신이 좋아하던 '피어아 수선화' 작가 공선옥과 함께 한 시글 생활을 들려주고 제인 구달과 스콧니어링의 책에 빠져든 사연도 소개한다. 김용택의 시를 좋아하는 문소리는 이창동 감독의 소개로 읽게 된 초바이크의 '발자크 평론'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책을 읽다보면 인터뷰를 한 이도, 11명의 독서가들도 참 행복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막강한 독서력을 자랑하는 저자는 그들이 언급하는 책에 같이 흥분하고, 같이 행복해하며 흥을 돋운다. 덕분에 인터뷰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책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깊은 속내도 거칠 없이 드러낸다.

'책에 관한 책'의 가장 큰 미덕이 또 다른 책읽기로 인도하는 거라면 그녀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다.

책에서 언급된 첫번째 책인 보르헤스의 '픽션들'을 시작으로, 에필로그에서 그녀가 '안아주고 싶은 산비로운 연인 같다'고 표현한 파르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산점들의 거리', 나스메 소세끼와 폴 오스터의 소설들은 그녀가 만난 독서가들의 사랑까지 더해져 꼭 한 번 읽어보고 싶게 만든다. 〈푸른숲·1만2천원〉

/김미은자 mekim@kwangju.co.kr

## 그들은 왜 그 책의 매력에 빠졌는가

그녀가 만난 이들의 책 이야기다. '정해운이 만난 매혹적인 독서가들'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책은 김중권·정이현·공지영·김탁환·은희경·신경숙·이진경·변영주·문소리·임순례·김탁환 등 11명과 나눈 '책'과 관련된 인터뷰다. 저자의 표현을 벌자면 '어떤 이의 인생을 책으로 엮어본 작은 전기'다.

시대의 독설가 진중권과의 인터뷰에서는 '강소천 아동문학전집'(이 책은 은희경도 언급한다)부터 베를린의 어린 시절' 등 가장 영향을 많은 발터 베이민의 저작들, 이런 책 한권 쓰고 나면 '죽어도 좋아'라고 외쳤던 프레이저의 '황금가지'가 등장한다.

임순례 감독은 자신이 좋아하던 '피어아 수선화' 작가 공선옥과 함께 한 시글 생활을 들려주고 제인 구달과 스콧니어링의 책에 빠져든 사연도 소개한다.

김용택의 시를 좋아하는 문소리는 이창동 감독의 소개로 읽게 된 초바이크의 '발자크 평론' 등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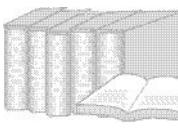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책을 읽다보면 인터뷰를 한 이도, 11명의 독서가들도 참 행복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막강한 독서력을 자랑하는 저자는 그들이 언급하는 책에 같이 흥분하고, 같이 행복해하며 흥을 돋운다. 덕분에 인터뷰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책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깊은 속내도 거칠 없이 드러낸다.

'책에 관한 책'의 가장 큰 미덕이 또 다른 책읽기로 인도하는 거라면 그녀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다.

책에서 언급된 첫번째 책인 보르헤스의 '픽션들'을 시작으로, 에필로그에서 그녀가 '안아주고 싶은 산비로운 연인 같다'고 표현한 파르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산점들의 거리', 나스메 소세끼와 폴 오스터의 소설들은 그녀가 만난 독서가들의 사랑까지 더해져 꼭 한 번 읽어보고 싶게 만든다. 〈푸른숲·1만2천원〉

/김미은자 mekim@kwangju.co.kr



새책

▲원칙이 있는 삶=소설 형식의 자기계발서. '경청'의 저자인 박현천이 여행사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해 개인의 삶을 비롯해 사회생활을 통해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원칙을 지키며 극복하는 지혜를 보여준다.〈위즈덤하우스·1만1천원〉

▲대통령님 나와주세요=일간지 기자인 김장배가 퇴임 이후에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리 농법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노 전 대통령의 귀향생활도 소개돼 있다.〈포북·1만2천원〉

▲도둑질 연애이야기=영국 연방의 노벨 문학상으로 불리는 부커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호주의 대표작가 피터 캐리의 장편소설. 어수룩한 형제 예술가를 통해 현대미술계의 어두운 면을 유머러스하게 다룬 작품이다.〈동아일보사·1만2천원〉

▲인생고수·삶의 열병을 앓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카운슬링=인간이 가진 고민을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풀어본다. 장자에게서는 참된 배려를, 니체에게서는 자기애의 의미를, 피터 드러커에게서는 인생 설계의 지혜를 찾았다.〈웅진지식이하우스·1만원〉

▲티치아노 미스터리=영국 출신의 미술학자 이자 저널리스트인 이언 피어스의 역사추리 소설. 해박한 미술사 지식을 바탕으로 16세기 유럽 르네상스의 거장 화가 티치아노의 그림에 숨겨진 비밀을 둘러싼 학계의 암투를 그렸다.〈서해문집·1만1천원〉

▲아이, 로봇=S.F 3대 거장'의 한 명으로 꼽히는 아이작 아시모프가 1950년에 출간한 로봇소설 모음집. 신문기자가 로봇심리학의 대개인 수잔 캠빈 박사를 인터뷰하면서 듣게 된 로봇들의 에피소드를 연작소설 형식으로 묶었다.〈우리 교육·9천800원〉

▲늑대 토템 1, 2권='아시아의 부커상'으로 불리는 맨 아시아 문학상 1회 수상작. 중국 작가 장릉이 중국 문학대혁명기 당시 몽골 초원에서 늑대와 함께 생활하며 늑대의 습성과 생태를 관찰한 뒤 쓴 자전적인 소설이다.〈김영사·각 권 1만2000원〉

▲죽음의 기술=죽음을 앞둔 사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특이한 현상을 소개한 책. 신경정신과 의사인 피터 웬윅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 죽음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부글북스·1만5천원〉

막심 고리키 '어머니'

탄생 100주년 재출간



한 때 금 서 였다  
1980~90년  
대 대학가  
에서 새내  
기 필독서  
로 꼽혔던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출간됐다. 러시아 전문 출판사 세네스티의 충서 시리즈 '새롭게 읽는 러시아 고전'이 첫 번째로 택한 작품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효시로 추앙되는 '어머니'는 1902년 실제했던 표트르 자로모프 모자 체포사건을 모델로 한 장편소설로 평범한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통해 정의의 투사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역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도 종교적 복음에서도 아닌 새로운 눈으로 '어머니'를 읽을 것을 제안한다.

〈세네스티·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그들은 한 권의 책에서...

정혜운 지음



그녀의 첫번째 저서 '침대와 책'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분명 두 번째 책을 기다렸을 것이다. '지상에서 가장 관능적인 독서기'라는 부제가 붙은 '침대와 책'은 독특한 매력이 있다. '꽃같은 그대가 울고 있을 때', '내 옆의 남자들이 매력 없이 보이면', '부장님께 뒷온 깐진 날' 등의 제목 아래 그녀가 처방전처럼 언급한 책들(지극히 주관적이지만, 한번쯤 그림을 짊어들게 만든다)은 그녀의 전방위적 독서권력을 잘 보여준다.

거기다 막걸스런 글쓰기와 적절히 배치된 자신과 주변의 이야기는 독자를 흡인하는 요소였다. 김용택의 시를 좋아하는 문소리는 이창동 감독의 소개로 읽게 된 초바이크의 '발자크 평론' 등에 대한

## 상가건물 매도

금호로 대로지 대지 231㎡(70평) 5층 20억  
한화로 대지 230.7㎡(69평) 5층 18억

한화로 대지 208.6㎡(64평) 4층 18억

한화로 대지 165.6㎡(54평) 4층 23억

한화로 대지 132.4㎡(40평) 3층 10억

한화로 대지 53.7㎡(16평) 4층 15억

한화로 대지 20.1㎡(6평) 1층 29억

한화로 대지 14.9㎡(4평) 1층 19억

한화로 대지 10.7㎡(3평) 1층 14억

한화로 대지 8.5㎡(2.5평) 1층 11억

한화로 대지 7.3㎡(2평) 1층 10억

한화로 대지 6.5㎡(2평) 1층 9억

한화로 대지 6.0㎡(2평) 1층 8억

한화로 대지 5.5㎡(1.8평) 1층 7억

한화로 대지 5.0㎡(1.6평) 1층 6억

한화로 대지 4.5㎡(1.5평) 1층 5억

한화로 대지 4.0㎡(1.3평) 1층 4억

한화로 대지 3.5㎡(1.2평) 1층 3억

한화로 대지 3.0㎡(1.0평) 1층 2억

한화로 대지 2.5㎡(0.8평) 1층 1억5천만원

한화로 대지 2.0㎡(0.6평) 1층 1억

한화로